

# 박준승 선생을 기리다

### 민족대표 33인 중 임실 출신... 비암 박 선생 추모공원에서 제례

31 만세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 유일한 전라도 출신이자, 임실이 고향인 독립운동가 비암 박준승 선생을 기리는 기념사업회가 개최됐다.

임실군 박준승(1866년~1921년) 선생 기념사업회는 박준승 선생 추모공원에서 기관사회단체장과 유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례행사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제례행사는 민족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인 임실출신 박준승 선생의 숭고한 뜻을 추모하고 넋을 위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박준승 선생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 독립을 선언한 뒤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보안법과 출판

법 위반으로 복역하던 중 옥사했다.

임실출신인 그는 고향에서 한학을 공부하던 중 1891년 천도교에 개종되어 입교했다. 1897년 접주가 되어 도호를 비암(批菴)이라 정하고, 전라도 일대에서 교리 선전에 힘썼다. 이후 1908년 수접주, 1912년 장성군 천도교 대교구장 겸 전라도 순유위원, 천도교사를 역임한 바 있다.

현재 임실군에는 천도교 임실교구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새롭게 조영되고 있다. 박준승 선생은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추서된 임실출신의 훌륭한 독립운동가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



임실출신 독립운동가 박준승 선생의 기념사업회가 개최됐다.

기념사업회는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33인 중 유일하게 목종시를 알리기 위한 동상을 건립 중으로 12월에 세워질 예정이다.

기념사업회 홍보성 이사장은 "오늘의 제례행사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본받고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사랑 상품권 내년 발행

### 시, 10억원 규모

남원시가 지역의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상권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2019년 10억원 규모의 남원사랑 상품권을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사랑 상품권은 남원시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로 1차분은 만원권 9만매, 천원권 10만매 등 총 19만매를 제작하여 내년 3월 유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지난해 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상품권 발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를 초청한 시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남원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했다.

남원사랑 상품권은 대규모점포,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 지역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내 현금유동성이 확대되어 남원시 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며, 상품권은 5%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관내 농협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상품권은 남원시에서 지정된 가맹점에서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시에서는 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마트, 시장, 학원, 약국, 스포츠용품점, 문구점, 소매점 등 생활밀착형 업소를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가맹점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단, 대규모점포,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는 제외된다.

상품권 가맹점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청 경제과(전화620-6342)나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상품권은 농협에서 환전이 가능하며 카드수수료가 없어 가맹점에게는 실질적인 매출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물품을 상품권으로 구입한 뒤 남은 잔액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나 액면가의 7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환주 시장은 "남원사랑 상품권 사용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가계에 보탬이 되는 남원사랑 상품권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 관촌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 소요 예산 4백만원 봉사자 모금·관촌면복지허브화 천사모 주민 성금으로

관촌면행복보장협의체(위원장장두천, 박순남)와 관촌면자원봉사센터(회장 김보숙)에서는 합동으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2018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관촌면 문화의 집에서 가졌다.

협의체위원과 자원봉사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장김치 나눔 사업 일환으로 김장담그기 봉사활동을 실

시했다. 이날 행사는 노령, 장애, 청장년 1인가구 등 가구여건으로 김장김치를 담지 못하는 가정에 배추 등 재료를 구입하여 김장김치를 지원했다.

행사에 소요된 예산 4백만원은 자원봉사자의 모금액과 관촌면복지허브화 천사모에 가입한 주민들의 성금으로 조성되어 의미를 더했다.

관촌면행복보장협의체는 내고장 북

지문제 해결을 위해 이웃돕기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복지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주민들을 위한 떡국봉사, 김장김치지원 등 관내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어 주민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강두천 위원장은 "정성과 사랑으로 버무린 김치 한포기가 어르신과 소외계층의 밥상에 올라 행복한 미소를 짓게 한다면 오늘의 고단함은 보람으로 보상받고도 남는다"며 "앞으로도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은 문화공연으로 주민과 관광객들을 즐겁게 했다

## 문화공연으로 관광객 유치

### 순창군, 골목 페스티벌 등 성료

순창군이 지난 주말, '골목 페스티벌'과 '이웃법석 맛있는 순창' 행사를 성황리에 마쳐 관내 주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런 행사는 천재의공간 영화산책과 민속마을, 향가터널 등에서 무성영화 상영과 퓨전국악 '소리꽃이되다', 전통무예극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지난 2일, 천재의공간 영화산책에서 열린 무성영화 상영에 젊은 관객층들은 처음 보는 광경에 신

기한 듯 눈을 떼지 못했다. 영화관을 처음 찾은 70대 관객은 "어린 시절 봤던 영화를 다시 보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며 옛 추억에 젖었다.

군 노후군 문화예술계장은 "순창군 곳곳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날처나는 관광객들로 관내 지역상권에 활기가 돌아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해 문화융성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오수시장 특설무대에서 문화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오수시장으로 장보러 가세' 성료

임실군은 5일 오수시장 상인회 교육장 특설무대에서 심 민 군수를 비롯한 군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수시장 장보러가세' 문화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시장고객과 상인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팔용 오수시장 상인회장은 "전통시장이 갈수록 시장을 찾아주시는 고객

들에게 소중하고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최상의 상품과 친절서비스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 민 군수는 "오수시장이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상인과 고객들이 하나되어 시장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흥이 넘치는 전통시장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매아리



## 남원시 가을철 산불 방지대책본부 운영

남원시는 오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가을철 산불위험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가을철 산불발생에 대비한 지역특성과 각종 시기·원인別に 맞게 지역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산불발생시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게 대응 산림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남원시 산림과 산림보호 담당자는 "행정에서는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산불발생은 대부분이 사소한 실수 등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만큼 산림연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을 금지하는 등 산불예방에 모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신규공무원 42명 소양교육 실시

순창군은 5일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올해 공직에 임용된 신규 공무원 42명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과 공직사회 적응을 위한 소양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기획, 예산, 공무원의 의무·금지사항, 인사, 회계, 복무 및 문서작성 등 6개 분야에서 신규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실무지식을 각 분야 담당계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강의 후에는 공직생활에 궁금했던 점들도 알아가는 시간도 가져, 신규공무원들에게 뜻 깊은 시간이 됐다.

또 황숙주 군수가 직접 강사로 나서 공직자로서 명심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순창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능동적인 자세로 우리 군의 활력과 변화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순창군은 올해 행정 9급 15명, 사회복지 9급 7명, 시설 9급 5명 등 총 44명의 신규공무원을 임용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명인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